

* 정답은 문항 옆에 붙어 있는 미주 번호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24) ④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작품은 정지용의 '향수(鄉愁)'로 고향과 그곳에서의 추억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넓은 별'은 시적 화자가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고향의 자연물 중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④의 설명은 그릇된 것이다. (가)의 '청산'이나 (나)의 '슈국', '뫼', (라)의 '산협촌' 또한 모두 현실적 제재이지만, 화자의 내면적 지향을 투사하는 대상으로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325) ④

각 연에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시어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후렴구는 일반적으로 시 전체의 통일성, 연과 연의 구분, 운율 형성 등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상 및 내용의 전개 과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은 악률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일종의 조흥구, 혹은 여흥구이므로 ①, ③과는 관계가 없다. ㉡은 '르, 오' 음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지만, ㉢은 그렇지 못하므로 ②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시상의 자연스러운 전개는 후렴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⑤는 답이 될 수 없다.

326) ③

(가)의 화자는 현실 적응에 실패하여 현실 도피처로써 '청산을 택했지만,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삶의 고독과 비애를 느끼는 존재이다. 반면 (나)의 화자는 세속에 초연한 채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 <보기>에서 '갑'은 세속적인 현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사람으로, '을'은 현실의 변화에 알맞게 대처하며 유유자적 살아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③이 답이 될 수 있다.

327) ③

시의 흐름을 파악하여 생략된 시어를 추리해야 한다. 4연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삶의 고독감이 주된 정서이며, 내용도 '이력저력 낮은 지내왔지만 밤은 또 어찌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시어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이라는 추리가 가능하다.

328) ④

㉠을 현대어로 풀이하자면 '낚시질을 즐기면서 자연에의 도취 또한 즐기겠다'이다. '낚시질'은 실생활과 관련된 삶의 문제인데, 시적 화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름다운 자연에서 느껴지는 흥(興) 또한 함께 취(取)하겠다는 말이다. ④는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상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발상과 표현이 ㉠과 유사하다.

329) ②

(다)시는 전체적으로 고향의 훈훈한 인정과 포근함을 그려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연에서 그려지는 것 역시 바깥의 바람 소리에도 불구하고 혼곤히 잠에 빠져 들어가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 모습은 비록 가난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광경으로 서글픈 아버지의 노년이 연상되지는 않는다.

330) ③

시를 감상할 때 내재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시어의 상징성, 정서적 효과, 묘사된 대상의 이미지, 표현 방법의 특징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에서처럼 이국적 소재를 끌어 쓴 이유를 추측하려면 시 자체의 내적 의미가 아닌 작자의 의도나 시대 현실과 결부시켜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재적 접근 방법이 된다.

331) ④

(다),(라)에 나타나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종합하면, 화자는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 고독감과 우수를 느끼면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지니고 있는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④'고향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다),(라)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332) ⑤

㉔,㉕는 시적 화자가 동화되어 살고 있는 자연이고, ㉖는 그리운 고향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㉗는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를 전설 바다의 파도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㉔~㉗는 모두 자연적 대상이며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시인의 긍정적 지향이 구체화된 것이다. 반면 ㉘의 공백한 '하늘'은 텅비어 있는, 그래서 쓸쓸함과 우수가 느껴지는 '하늘'로서, 도시적 이미지가 결합된 자연물이면서 비애와 고독의 부정적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333) ③

(가)는 임금이 풍상이 섞여 친 날에 흥문관에 노란 국화를 보냈다는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주관화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나)는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모습과 그 즐거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나서, 작가의 감회를 표출하고 있다. (다)는 자신의 가난한 생활의 모습을 다소 과장되게 제시하고 나서 가난 속에서도 안빈(安貧) 일념을 버리지 않겠다는 주관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세 작품 모두 사실을 제시하고 나서 주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334) ④

㉚은 오상고절을 상징하는 국화꽃을 흥문관에 보낸 임금의 뜻이고, ㉛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속에서도 가난을 편안히 여기는 안빈 일념이다. 따라서 ㉚은 화자의 신념일 수 없으며, ㉛은 새로운 깨달음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㉜ ㉚은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㉛은 이어지는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335) ④

'금분'은 황국화가 임금의 하사품임을 의미하고, '옥당'은 '흥문관'의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금분을 정신적 의미, '옥당'을 물질적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㉞ '섞여 친'과 '갓 피운'이라는 낱말이 풍기는 어감은 강렬함,박력과 부드러움,연약함이다.

㉟ '풍상이 섞여 친 날'에 '갓 피운 황국화'는 시련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선비의 지조나 절개를 상징한다.

336) ②

이 작품은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노동하는 기쁨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 농민들은 육체와 정신이 통일되어 있다. 시인은 농민들의 건강하고 생동하는 삶을 통하여, 벼슬길을 헤매고 다니는 자신, 즉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는 시적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나머지는 얼마든지 영상물에서 시도할 수 있는 계획이다.

337) ④

'태평사'에서 태평성대가 오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작자는 '누항사'라는 작품에서는 '설대운 승냥으로 빈 배를 속일 수밖에 없는' 가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비록 안빈 일념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는 있지만, '태평사'에서 간절히 바랐던 태평성대는 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두 작품을 종합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338) ③

종학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윤 직원 영감은 종학의 피검 소식을 알리는 '전보'를 받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된다. 또한 이 '전보'는 주인공의 몰락을 암시하고 새로운 갈등 구조를 야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시점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339) ④

전지적 작가 시점인 이 글에서 서술자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듯이 보이지만,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윤

직원 영감의 이기적이고 반민족적인 사고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340) ①

<보기>의 시적 화자는 일제 강점기에 착취당하고 떠도는 민중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시적 화자라면 당시를 '태평 천하'라고 인식하고 있는 윤 직원 영감의 왜곡된 현실관을 비판하게 될 것이다.

341) ③

감상문에서 말하고 있는 '작품 속의 세계와 자기와의 만남'이란, 등장 인물의 욕망이나 언행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아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것을 말한다. ①,②,④,⑤는 작품에 자기를 비추어봄으로써 깨달음을 얻은 예이나, ③은 새로운 사실을 안 예에 해당한다.

342) ④

고난과 극복의 체험이 뒷날 내 수병 시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④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343) ⑤

이 소설은 작중 화자가 두 체험을 회상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⑤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 의한 서술이다.

344) ①

① : 고립되어 도움을 받을 데가 없음. ③ : 찾을 길이 막연하거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 ④ : 확실한 방법을 모르고 이리 저리 시도함.

345) ②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극한 상황에서 '그물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소심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동료는 사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물을 잘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주었음에 착안한다.

346) ①

'나'는 절망 속에서도 꿈을 가지려 애쓰고 있으나, '그물'문제에서 보듯이 다소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47) ⑤

마지막 단락에서 별은 '인간의 삶과 연관되어 파악되던 것'이라 했으므로, 별에 부여하는 의미는 인간의 삶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⑤와 일치하지 않는다.

348) ⑤

대부분의 별은 수소가 중력에 의해 뭉쳐지면서 탄생하며, 중력의 압력에 의해 수축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폭발하면서 객성이 된다.

349) ②

노인성은 객성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항성의 하나라고 했으므로, 태양과 같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 밝게 빛난다고 할 수 있다.

350) ①

'핵융합 반응'이란 수소가 수축하면서 내부 온도가 높아질 때 수소핵들이 서로 합쳐지는 과정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②,③,④는 '핵융합 반응 조건'이며, ⑤는 결과이다. ①은 '핵연료의 소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351) ②

①,③,④,⑤는 모두 생애나 과정을 끝마친다는 뜻으로 ㉠과 바꾸어 쓸 수 있으나, ㉡'미궁'은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 나올 수

없거나, 일이 복잡하게 얽혀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킨다.

352) ⑤

세 번째 단락 '과학은 사물의 현상과 작용을 밝히는데 만족하고, 현존하는 사물의 성질과 과정에만 시야를 국한한다'에서 '현존'과 '현상'은 모두 과학의 속성이다.

353) ④

직접적 논거는 바로 뒷 문장인 '확실히 철학자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온갖 지혜를 추구한다'이다.

354) ⑤

철학은 미래에 대한 가설적 해석이며, 과학은 정확한 지식과 기술이고,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삶에 이용한다는 뜻으로, 이런 관계를 표현한 것은 ⑤이다.

355) ③

철학은 진리에 대한 근본적 갈증에 의해서 미지 세계의 의미와 가치 등 본질적인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356) ①

㉠는 '가설'이라는 출발점을 ㉡는 '성취'라는 결과를 의미한다. '㉠(가설의)샘:㉡(성취의)바다'와 유사한 것은 '씩:열매'이다.